

MBC <무한도전 - 무한상사>

희망의 가치는 무한하다

손정은

발터 벤야민은 그의 저서 <기술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아우라 상실의 시대’에 대해 애도했다. 그림을 대신해 사진이 등장하고, 영화가 등장하면서 복제품이 늘어나고, 결국 원본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술적인 분위기, 즉 ‘아우라’가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아우라 상실의 시대에서 대중은 원본의 고유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MBC <무한도전>에 ‘아우라 상실의 시대’를 접목해본다. <무한도전>만이 가졌던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참신한 포맷은 이제 흔한 포맷이 되었다. <무한도전> 이후로 <1박 2일>과 <런닝맨>을 비롯한 수많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쏟아졌다. 수많은 복제품들 속에서 <무한도전>만이 가질 수 있었던 아우라는 사라진 시대다.

그러나 여전히 무한도전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는 <무한도전>만의 이야기기가 있다. <무한상사>다. <무한도전>의 한 코너로 시작했던 역할극이 <무한상사> 특집으로 이어졌다. <무한도전>이 수많은 미션에 도전하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동안, <무한상사>는 수차례에 걸쳐 방영되고 있다. 어느새 <무한상사>는 <무한도전>의 대표적인 에피소드로 자리매김했다.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아우라는 사라졌을지언정, <무한상사>는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무한도전>만의 아우라다.

<무한도전>과 <무한상사>의 사이

콘셉트는 명확하다. 무한그룹의 계열사 무한상사. 직급에 따라 서열이 결정되는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위계질서와 생존경쟁이 당연한 ‘회사’라는 공간이다. <무한상사>는 이 위계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과 부조리를 웃음의 소재로 차용한다. 이를 위해 부각되는 것은 각각의 캐릭터다. 일 잘하지만 간간한 유부장, 만년차장 박차장, 눈치 없는 정과장, 야심 많은 하사원까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만 같은 회사원들이다.

<무한도전>의 역할극이지만, <무한도전>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유부장은 “내가 유재석인 줄 알아? 난 유부장이야!”라고 외치며 부하직원을 외면한다. 정대리는 TV에 출연한 연예인 정형돈을 보며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새로운

캐릭터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무한상사>는 그만의 세계관을 공고히 구축한다. 이 덕분에 무한도전에서는 크게 느껴졌던 노홍철, 길, 정형돈의 빈자리가 <무한상사>에서는 ‘정리해고’라는 한마디로 설명된다. 새로 들어온 황광희, 인턴, 양세형, 과장 역시 회사의 새로운 사원일 뿐이다. 시청자 역시 <무한상사>에서 <무한도전>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다. 평소 조율의 역할을 하는 유재석이 잔소리를 일삼는 유부장이 되어도, 뻔뻔한 박명수가 굽실거리는 박차장이 되어도, 시청자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무한도전과 무한상사의 캐릭터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무한도전과 무한상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도 존재한다. 지나친 애드립에 유부장은 ‘이건 받아줄 수 없지’라며 면박을 준다. <무한도전> 내의 역할이 잠깐 등장하는 순간이다. 정형돈은 <무한상사>에서 캐릭터를 만들어달라며 떼를 쓴다. <무한상사>에 몰입했다면 나올 수 없는 장면이다. 멤버들이 <무한도전>과 <무한상사> 사이를 넘나들며 <무한상사>의 콘트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2016 무한상사 - 위기의 회사원>은 이러한 점을 영리하게 이용한다. <2016 무한상사 - 위기의 회사원>라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은 <무한도전>의 콘텐츠다. <무한도전>의 멤버가 <무한상사> 촬영을 위해 오디션을 보고, 배역을 정하는 장면은 <무한도전>멤버들의 몫이다. 반면, 완성된 프로젝트는 <무한상사>의 독립된 에피소드다. <무한도전>의 멤버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무한상사>의 세계관을 존중한다. 제작진은 <무한도전>과 <무한상사>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 순간, 경계가 허물어진 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경계의 무너짐은 시청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이기도 하고, 캐릭터 설정을 더욱 강화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시청자가 <무한도전>과 <무한상사>를 더욱 즐길 수 있도록 <무한상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율한다.

예능과 드라마 사이

회사의 사람들이 연달아 죽는다. 유부장은 의문의 쫓김을 당하다 결국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는다. 이에 의문을 품은 영업3팀의 사원들이 죽음의 비밀을 풀기 위해 나선다. 언뜻 스릴러영화처럼 보이는 이 줄거리가 <2016 무한상사 - 위기의 회사원>의 내용이다. 기존의 <무한상사>가 멤버들의 애드리브로 이루어진 역할극이었다면, <2016 무한상사 - 위기의 회사원>은 철저하게 각본을 짠 드라마다. 제작과정도 다르지 않다. 영화감독이 연출을 맡

왔고, 드라마작가가 각본을 집필했다. 쟁쟁한 배우들이 카메오로 등장했다. 진지한 멤버들의 연기까지 더해져 기존의 콩트가 정극 한 편으로 구성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콩트의 캐릭터를 차근차근 구축해 온 <무한상사>만이 시도할 수 있는 예능과 드라마의 콜라보다.

<무한도전>의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예능이라는 장르에 스틸러는 너무나 이질적이다. 자칫, <무한도전>의 장르적 특성이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무한상사>는 이를 정확하게 캐치해낸다. 자칫 드라마와 예능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지점에서, <무한도전>의 해결책은 웃음이다. 드라마의 전개에 예능적인 요소를 배치한다. 카메오 이재훈은 ‘무전기가 고장났다’며 드라마 <시그널>을 패러디하고, 영화 <곡성>의 배우 김환희도 갑자기 등장해 ‘뿔이 중헌디!’라는 명대사를 선보인다. 진지함 속에서도 시청자의 웃음을 유발시키는 요소다. 그래서 <2016 무한상사 - 위기의 회사원>에서 나타나는 멤버들의 어색한 연기는 큰 흠이 아니다. <무한상사>의 역할은 웃음이지 진지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설픈 개연성도 큰 문제가 아니다. 권전무가 왜 하필 김과장에게 전화를 했는지 의문이 남고, 간호사를 어떻게 매수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예능이기에 허용되는 범위다. 예능과 드라마의 콜라보가 이루어지는 순간, <무한상사>는 시청자의 웃음을 택한다.

예능과 현실 사이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가 지금까지도 회자될 수 있는 이유다. 그의 코미디에는 사회적 풍자가 투영되었다.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웃음이 담겨있었다. 희극과 비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했다.

<무한상사> 또한 예능과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반복한다. 무한상사라는 회사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다. 실적압박에 스트레스를 받고, 서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회사원의 현실을 희극의 소재로 사용한다. 스펙경쟁에서 패배한 하사원은 승진을 하지 못한다. 구조조정으로 정과장이 해고된다. 그렇지만 슬픈 현실 속에서도 예능의 본분인 ‘웃음’은 잊지 않는다. 과장된 연기와 슬랩스틱으로 웃음을 이끌어낸다. 하사원은 열등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개그캐릭터로 활약한다. 해고 이후 사업가로 성공한 정준하의 결말은 꿈이다. 비극적인 요소가 해학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무한상사>를 통해 얻는 웃음은 마냥 즐거운 웃음이 될 수 없다. 가혹한 현실의 투영이기 때문이다.

<2016 무한상사 - 위기의 회사원>에서 권전무는 그의 죄를 김과장에게

덜어뜨우려 한다. 회사원들의 잇따른 죽음 또한 권전무의 계략이다. 회사의 ‘갑질’이다. 사회의 정의보다 개인의 영달에 목매 수밖에 없는 비정한 현실이기도 하다. 현실과 예능 사이, 줄타기를 하던 <무한상사>가 이번에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유부장과 하사원은 가치 있는 인간이기를 택한다. ‘쪽팔리게 사는 것보다 바보처럼 사는 게 낫다’고 토닥인다. 수년 간 예능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해 온 <무한상사>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아직은 인간적인 회사가 옳고, 아직은 바보처럼 사는 게 가치 있다는 것, 희망이 아직은 존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예능의 본분일 테다.

<무한도전>이라는 이름의 무게

어느덧 500회를 넘겼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멤버들은 교체되었다. 전성기의 시청률은 반토막이 났고, 매주 <무한도전> 위기론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무한상사>는 재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무한상사>의 시작은 ‘야유회’였지만 지금은 실적경쟁에 시달리는 회사원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여섯 명만의 무한상사가 어느새 무한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소속이 되었다. <무한도전>의 성장과 함께 <무한상사>도 함께 변했다. 실적을 올리라며 잔소리하는 유부장의 모습은 시청률을 가지고 타박하는 시청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쟁쟁한 배우들을 섭외하고 PPL이 삽입되는 장면 또한 이제 더 이상 여섯 명만의 <무한도전>이 아님을 시사한다. 제작진도, 출연진도 <무한도전>의 무게가 버거워질 시간이다.

그럼에도 <무한상사>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회사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동시에, 이를 극복하는 것 또한 서로의 인간성임을 이야기한다. <2016 무한상사 - 위기의 회사원>에 등장한 정형돈은 “부장님, 힘내세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겨워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하셔서 다 같이 웃으면서 꼭, 꼭 다시 만나요”라고 위로한다. <무한도전>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모두를 위한 응원이다.

10년 넘게 이어 온 <무한도전>과 시청자의 유대감은 변하지 않았다. 화제성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TV프로그램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시청자의 전폭적이니 지지가 있었기에 <무한상사>도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킬 수 있었다. <무한상사>가 희망을 말하는 한, <무한도전> 또한 희망의 가치를 품을 수 있다. <무한도전>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시청자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고한 팬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한도전>의 가치는 무한하다.